

## 【서평】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백승영 지음, 책세상, 2005년)

# 니체 사상에 대한 종합적 소개 및 연구

박 찬 국\*

## 1.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의 내용과 성과

백 박사의 책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능한 배제하면서 니체의 사상을 원전에 입각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 박사는 다음과 같은 니체의 말을 니체를 해석하는 사람이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경고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가장 나쁜 독자는 약탈하는 군인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 그들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취하고, 나머지는 더럽히고 엉클어뜨리며, 전체를 모독한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인용하지만 사실 니체의 권위를 빌어 자신

---

\* 서울대학교

의 견해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니체의 이 말은 니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여겨진다.

백 박사는 니체 철학은 외관상으로는 비체계적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그러한 통일성을 ‘역동적인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특히 백 박사는 니체가 원래 자신의 주저로서 계획하고 있던 『힘에의 의지』라는 책에서 니체의 사상이 어느 정도 잘 정리되고 종합적인 철학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고 본다. 백 박사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와 인간, 인식과 도덕 그리고 예술에 대한 니체의 사상을 명쾌하게 소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은 6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부와 2부는 니체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총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3부에서 6부까지는 니체의 존재론과 인식론, 윤리학과 예술철학 각각의 주제에 대한 상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1부 <니체철학 입문>은 니체의 생애를 그의 사유 과정 및 저작들과의 연관 속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한편 니체 철학의 영향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영향사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른 니체 연구서들에서는 보기 힘든 이 책만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백 박사는 과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니체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그리고 철학 뿐 아니라 철학 이외의 영역에 니체 철학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더 나아가 현대 철학 및 현대문화 전반이 어느 정도로 빚지고 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다.

제2부 <니체철학의 과제와 방법론>은 니체 철학의 과제와 방법론을 다루면서 전통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니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부는 다시 크게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장은 철학은 인간의 자기 긍정과 인간의 현실적 삶을 긍정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니체의 철학관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장은 힘에의 의지라는 설명원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과제 수행을 위한 방법적인 원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장은 서양형이상학의 토대를 형성했던 형이상학적-도덕적-목적론적 해석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도덕적-목적론적 해석은 절대적인 도덕가치에 모든 가치에 대한 우선권 및 지배권을 부여하고 그 가치의 절대성을 믿으며, 그것을 이론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초월세계 및 존재 세계를 고안해내어, 도덕 가치를 철학 활동 일반과 인간의 실천적 삶을 규정하는 규제원리로 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3장에서 백 박사는 아낙시만드로스에서 쇼펜하우어에 이르는 서양의 대사상가들 각각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상당히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 책의 중요한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장은 서양의 전통철학에 대한 니체의 해체작업이 유럽문화의 근본에 대한 해체와 통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니체 당시의 시대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제3부 <새로운 세계 해석의 건설: 생기존재론>은 니체의 존재론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 오는지를 니체의 초기저작에 속하는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후기의 『힘에의 의지』 유고에 이르기까지 추적하고 있다. 백 박사는 힘에의 의지 개념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전의 초기사유에서는 주로 사회적-정치적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에서 등장하는 힘 개념에 대한 고찰에서 이미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1881년 『아침놀』에서부터는 자연과학과 자연철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힘에의 의지 개념이 존재자 전체의 본질을 해명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3부의 부록 <서양 형이상학의 완성인가 극복인가 : 하이데거의 니체>는 니체를 서양형이상학의 완성자로 보는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과 비판적으로 대결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대한 비판적인 대결은 하이데거와 니체가 현대사상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중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결

은 하이데거와 니체라는 사상가 둘에 대한 정통한 이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그다지 행해져 오지 않았다. 이 점에서 백 박사가 행하고 있는 작업이 상당히 큰 의의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제4부 <해석적 지식과 해석적 진리: 관점주의 인식론>은 니체의 인식론을 심도 있게 드러내고 있다. 백 박사는 여기에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전통형이상학의 이원적 인간관에 대한 니체의 비판과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니체가 제시하는 신체적 주체로서의 인간관, 전통 인식론에 대한 대안인 관점주의를 살펴보고 있다. 백 박사는 여기서 니체의 인식론은 인식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으면서도 인식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니체의 인식론을 실재에 대한 인식불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인식다원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니체의 인식론에 대한 백 박사의 독특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해석을 백 박사는 4부의 첫 번째 부록인 <인식방법론으로서의 ‘공정함’>에서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백 박사는 4부의 두 번째 부록인 <니체의 해석철학과 철학적 해석학>은 니체 철학의 해석학적 함축과 해석학에 대한 기여가능성을 짚어보는 글로서 가다머의 해석학과 니체의 해석학 사이에 성립하는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5부 <비도덕주의적 윤리학>에서는 도덕규범을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도덕관에 대한 니체의 비판과 니체의 독특한 윤리관을 소개하고 있다. 5부의 부록인 <자살의 윤리학>은 니체의 윤리학을 자살이라는 주제에 적용한 것이다. 이 논문은 죽음에 대한 니체의 사상을 살펴보는 흔치 않은 논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백 박사는 니체의 죽음관이 안락사와 같은 현대생명윤리의 대주제에 대해서 일정한 빛을 던져줄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잘 드러내고 있다.

제6부 <예술생리학>은 니체의 초기 예술관인 예술가-형이상학(Artisten-Metaphysik)과 후기 예술관인 예술생리학(Physiologie der

Kunst)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니체의 예술 생리학 역시 그 동안 연구되지 않은 분야로서 백 박사의 연구는 개척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백 박사는 이 책에서 니체 사상에 대한 체계적-역사적 읽기라는 방법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니체 사상의 전개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도 그 사상의 통일성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백 박사는 니체 사상을 다각도에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백 박사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드러난 니체를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Philosophie des dionysischen Ja’의 철학자로서 파악하면서 니체의 철학은 생성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고 보고 있다.

## 2. 니체의 인식론의 주안점이 인간 이성의 유한성을 주장하는 데 있는가? -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대한 백 박사의 비판과 연관하여

본인은 이상에서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 책이 이 나라의 니체 연구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서술했다. 다음에는 본인이 백 박사의 니체 해석과 생각을 달리 하는 점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본인은 백 박사의 해석을 대체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대한 백 박사의 비판과 ‘니체 인식론의 주안점이 인간 이성의 유한성을 주장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 그리고 니체의 영원회귀사상의 해석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본인이 백 박사와 가장 의견을 달리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인 니체의 인식론에 대한 백 박사의 해석과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대한 백 박사의 비판에 대해서만 본인의 생각을 개진하려고 한다.

백 박사는 니체가 전통형이상학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인간 이성이 실재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는

데서 찾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407쪽) 이와 동시에 백 박사는 니체의 인식론의 주안점은 ‘인간 이성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세계 해석이 하나의 관점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에 입각하여 백 박사는 니체의 형이상학이 인간을 진리의 원천으로 보는 극단적인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보는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해석에 대해서 백 박사는 니체는 인간 이성의 유한성과 존재의 비밀을 강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니체의 인식론에 대한 백 박사의 이러한 해석은 니체의 인식론을 칸트의 인식론과 동일한 문제의식에 서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사실은 백 박사가 니체의 관점적 세계 해석은 인간 이성 사용의 근원 및 한계에 대한 숙고라고 보면서 칸트가 자신의 인식론의 문제의식을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니체의 인식론이 지향하는 바를 해석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408쪽)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전통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이 지향하는 것은 이성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파악 불가능한 실재 자체에 대한 겸손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전통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전통형이상학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에 불과한 상상물들인 신이나 절대적 도덕률을 실재 자체로 착각하면서 그것들을 이상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것은 전통형이상학이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를 실재로 믿으며 특히 이러한 허구가 존재와 생성을 양분하면서 사람들의 의지를 병약하게 만드는 종류의 허구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전통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이렇게 볼 경우에만 전통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기독교나 칸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은 유한하기에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칸트 역시 인간의 이성은 실재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데카르트도 인간의 이성은 신적인 이성과 달리 항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의 유한성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니체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자신들이 상정하는 신이나 도덕률 등이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니체의 이성비판의 주안점은 인간 이성의 유한성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이 한갓 힘에의 의지의 도구일 뿐임을 드러내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형이상학에서는 이성을 과대평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기능을 잘못 생각한 것이 문제다.

아울러 백 박사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니체는 전통형이상학에서 존재와 생성의 이분법은 이성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병약한 힘에의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의 주안점도 형이상학자들의 오만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의지가 병약한 의지라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다.

더 나아가 백 박사는 니체는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 망각을 고발하고 있다고 보면서 존재 망각의 원인을 이성의 자기 과대평가에서 찾고 있다. 이와 함께 백 박사는 니체의 형이상학 극복 선언은 곧 존재 망각으로서의 형이상학 극복 선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망각의 개념을 이렇게 파악한다면 니체뿐 아니라 기독교와 칸트를 비롯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모든 철학사조는 존재를 망각하지 않은 것이 된다. 백 박사의 이러한 주장은 하이데거의 존재망각 개념에 대한 오해라고 여겨지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니체 인식론의 주안점에 대해서 잘못 짚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니체가 고발하고 싶은 것은 서구형이상학이 존재를 망각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서구형이상학이 생성과 육체를 부정함으로써 인간을 병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생명력을 약화시켰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서구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이러한 비판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실재 자체의 파악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칸트철학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서구형이상학의 극복과 관련하여 니체가 지향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가해한 실재 자체에 대한 겸손과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겸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건강하고 고귀한 힘을 회복할 것을 주창하는 것이다. 니체는 카이사르나 나폴레옹을 찬양하지만 이는 이들이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타인들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강하고 기품 있는 힘 때문이었다.

백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세계의 원 의미나 세계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해석 활동이 주관적 제약을 결코 탈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주관적 한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미 창조 활동으로 본질이나 본성을 파악하고 정의내릴 수 있다고 여기게 된다.”(462쪽)

그러나 본인이 이해하기에 니체는 우리의 주관적 제약 때문에 실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기능이 실재 자체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의 의지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니 힘에의 의지는 실재 자체를 파악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힘에의 의지는 실재 자체를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니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은 실재 자체를 파악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견해를 관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은 힘에의 의지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힘에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치들을 창조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니체는 다윈론과 관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에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관점들에 대한 단호한 부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힘에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관점들의 수립



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인들은 다른 종족들을 야만인으로 폄하하고 로마인들은 제국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계관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려고 했지만 니체는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않는다. 니체에게는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힘 의지를 강건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관용을 베풀었든 그렇지 않았든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를 ‘큰 이성’으로 보는 니체의 사상과 니체의 위버멘쉬 개념에 대한 백 박사의 해석도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백 박사는 니체가 ‘큰 이성은 겸손하기에 큰 이성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495쪽). 그러나 니체가 큰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겸손한 이성이기에 큰 이성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적으로 이성이라고 불리는 의식적인 이성을 규정하고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성이라고 여겨진다.<sup>1)</sup>

아울러 백 박사는 위버멘쉬를 존재의 비밀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위버멘쉬는 존재의 비밀에 대한 겸손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들을 절대시하지 않고 자신의 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치들을 자유롭게 창조하는 자를 말할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니체철학의 주안점은 인간이 실재를 파악할 수 있

1) 이와 관련해서는 니체의 다음 말들을 참고할 것.

“감각과 정신은 도구이며 장난감이다. 그것들 뒤에는 여전히 자기(das Selbst)가 있다. 자기는 감각의 눈으로 찾고, 정신의 귀로도 듣는다. 자기는 항상 들으며 찾는다. 그것은 비교하고, 강요하고, 정복하고, 파괴한다. 그것은 지배하며, 또한 자아의 지배자이다. 그대의 사상과 감정 뒤에, 나의 형제여, 강한 명령자, 알려지지 않은 현자가 있다. 그것이 자기라고 일컬어진다. 그것은 그대의 몸 속에 살고, 그것은 그대의 몸이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1 권, 4 쪽: <육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대의 작은 이성도 몸의 도구, 즉 그대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며 그것의 장난감에 불과하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1 권, 4 쪽: <육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해서>.

느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인간이 강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 실제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이성이 힘에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보다는 실제 자체를 파악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 된다.

백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차이점은 감각을 배제한 순수 사유 작용을 통해서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하는 플라톤,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이성적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표상하고 생각하는 실체로서의 ‘나’를 ‘근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데카르트 이후의 형이상학과 니체의 형이상학을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것이기도 하다. 이 차이점에서 우리는 ‘니체가 존재를 망각하는 서양 형이상학을 완성 한다’는 하이데거의 견해가 정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차이점의 근거는 이성의 능력과 권한 자체에 대한 니체의 한계 설정에 놓여 있다. 간단히 말하면 니체에 의하면 인간은 표상하고-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고-해석하는 주체다.”(133쪽)

백 박사의 이러한 해석과 달리 하이데거는 니체가 인간은 표상하고-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고-해석하는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십분 잘 알고 있다. 전통형이상학의 인간관과 니체의 인간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니체 철학을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알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 바, 하이데거 정도의 사상가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이데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전통형이상학과 니체의 철학 사이에 놓여 있는 차이와 이러한 차이에 대한 니체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니체의 철학이 서구 형이상학의 완성이자 서구 형이상학을 규정해 온 인간중심주의의 정점이라고 본다. 니체철학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하이데거가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와 니체의 철학이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니체와는 전혀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에서는 서구형이상학의 역사와 니체 철학이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에 대해서 극히 간략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에게 세계는 쾰지스로서, 즉 ‘그 자신의 존재 내지 진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경험되었다고 본다. 즉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은 경이(Er-staunen)라는 근본기분에 입각하면서 존재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배의지를 벗어나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자 전체의 진리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존재자는 인간의 인식의지에 의해서 파악되는 객체가 아니라 그 자신의 진리를 스스로 드러내며 우리 인간은 이러한 진리에 자신을 여는 현-존재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플라톤에서부터는 존재자의 진리는 인간의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철학은 존재자가 자신의 진리를 스스로 드러낸다는 쾰지스의 경험에 입각해 있다고 본다. 즉 플라톤의 이데아만 해도 존재자가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의미와 인간의 지적 이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라는 양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시대 이후 이러한 쾰지스의 경험은 망각되고 근대 철학에 오면 자연은 인간의 선형적인 인식체계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니체 이전의 근대철학자들에게는 이러한 선형적인 인식체계는 인간이 존재자의 인식을 위해서 따라야할 기준으로서 인간에게 원래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니체에서는 이러한 인식체계는 인간이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된다. 즉 그것들은 인간의 힘 의지의 강화를 위한 조작적인 가설체계들로 간주되며 그것들이 인간의 힘 의지를 약화시킨다면 언제든지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서구형이상학의 역사는 이렇게 자신의 진리를 스스로 드러내는 쾰지스가 망각되고 인간의 인식의지와 지배의지

가 갈수록 전면에 등장하는 역사로 파악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런 의미에서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를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를 망각하고 인간의 지배의지가 갈수록 증대해 가는 인간 중심주의의 심화과정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역사의 정점에 니체가 서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망각이란 이러한 뷔지스 망각, 즉 인간이 존재자에 대한 지배의지 뿐 아니라 인식의지마저도 온전히 비울 때 자신을 찬연(燦然)히 스스로 드러내는 세계에 대한 망각이다.

백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해석자의 인식 의지가 생기로서의 세계에 형식을 제공하고, 그 세계를 범주화하고, 변경하고, 논리화하여 자신의 의미 세계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은 예외 없이 이런 특징을 갖는다. 해석인 것이다. 철학적 해석 활동 역시 의미 세계를 창조하는 해석 활동이다. 니체는 이런 해석 활동이 철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철학이 해석이고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것인 한, 철학은 수학 이론처럼 객관적으로 타당한 개념들의 체계를 구성해 낼 수 없다. 니체는 의미 세계를 조직하고 창조하는 이런 해석 활동 일반을 예술이라고 부른다.”(106쪽)

하이데거야말로 백 박사의 이러한 니체 해석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백 박사가 서술하고 있는 니체 사상의 바로 그러한 성격 때문에 니체의 사상은 인간중심주의라고 본다. 이는 니체가 인간 인식의 본래적인 기능을 존재자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배의지에서 벗어나 존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해석을 존재자들에게 부과하는 데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백 박사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의 삶. 이것은 니체에게서 가치의 유일한 척도이자, 그 자체로는 더 이상의 다른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마지막 척도이다.”(107-108쪽)

“삶의 기술로서의 [니체의] 철학 개념은 ‘진리를 발견하는 entdecken기술’이라는 철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식 정의를 재검토하게 한다. 이 정의가 불충분한 것은 그것이 진리를 삶보다도 우선시하기 때문이고, 진리가 해석자의 삶과 힘에의 의지에 의해서 창조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도외시하기 때문이다.”(107쪽)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경험한 세계인 뷔지스의 경험에 더 근접해 있고 니체의 철학은 뷔지스의 경험에서 더 멀다고 보고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보다는 존재자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존재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존재자들의 진리에 대한 더 큰 존중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인은 이상에서 하이데거가 왜 니체의 철학을 서구형이상학을 갈수록 더 크게 규정해 가는 인간중심주의의 정점이라고 보는지를 극히 간략하게 서술했다. 하이데거는 니체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철학과 전통철학을 구별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서 니체 철학의 본질과 의의를 자신이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서구형이상학의 역사에 비추어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본인은 전통형이상학의 역사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이 니체의 해석에 비해서 더 옳다거나 하이데거의 사상이 니체의 사상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은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는 백 박사와는 다른 의견에서이다. 본인이 보기에 니체는 오이겐 핑크(Eugen Fink)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통형이상학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그의 영원회귀와 운명애의 사상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형이상학을 넘어서는 측면이 존재한다. 물론 이 경우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과 운명애에 대해서도 본인은 백 박사와 의견을 달리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상술할 수는 없다. 본인은 다만 여기에서는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은 백 박사의 해석과는 달리 전통형이상학

과 니체의 형이상학 사이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니체의 인식론이 지향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을 뿐이다. 아울러 본인은 하이데거가 어떤 의미에서 존재망각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싶었다.

하이데거는 전통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과 ‘힘에의 의지’ 사상 그리고 니체의 인식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본인이 보기에는 오히려 니체의 인식론으로부터 백 박사가 끌어내는 해석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백 박사는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이 편집본 『힘에의 의지』가 니체 철학의 주저라는 견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비판하면서 하이데거가 니체의 유고를 보지 못한 데서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의 오류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395쪽).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하이데거는 편집본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니체에 대한 그의 강의록들을 보면 그는 이 편집본을 대단히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번역한 『니체와 니힐리즘』(하이데거 전집 48권에 대한 번역, 지성의 샘)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하이데거는 이 책의 47쪽 이하에서 “... 1906년 이래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책은 이 단편들이 처음에 쓰인 순서나 고쳐 쓴 순서에 따라 편집된 것이 아니라, 편집자들의 불투명하고 근거나 불확실한 계획에 따라서 짜 맞추어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 3. 맺으면서

본인은 이렇게 몇 가지 점에서 백 박사의 니체 해석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지만 백 박사의 니체 해석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백 박사의 책이 우리나라에서의 니체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우리 학계의 니체 연구수준은 이제 니체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니체에 대한 비판적인

대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니체 철학은 그 주장이 라 디칼한 만큼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니체는 반(反)민주주의자이며 자신의 형이상학으로부터 이러한 정치철학적인 입장을 끌어내고 있다. 니체의 반민주주의를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가? 나는 민주주의는 니체가 지적하는 민주주의의 모든 약점들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니체의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힘에의 의지에 대한 니체의 사상, 그의 인식론, 그의 민주주의이론, 그의 예술철학 등, 그가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들이 우리들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다. 백 박사가 자신의 탄탄한 니체 이해에 기초하여 니체와의 대결에서도 우리에게 선구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서평을 가름한다.

